

목포 학교급식 부적격 업체 선정 논란

목포시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업체로 부적격업체를 선정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는 56억원의 예산을 들여 목포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유치원·보육시설 등에 전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근 4개 업체를 선정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시의원과 학교급식조례위원회 등 13명으로 구성된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서류심사 60점, 현지실사 35점, 심사위원회 5점 등 100점 기준으로 선정했다.

서류심사 기준은 냉장보관시설, 배송차량, 냉장탑차, 자체 안정성 간이 검사실, 종사인력 충원, 배송인력, 300명 이상 단체급식 납품경험 등 8개 항목이었다.

또 업체 운영 및 시설상태, 냉장보

실사 회피하고 인력 속여…심사과정 주먹구구

지난해 잔류농약 검출업체 선정 학부모 반발도

관시설 운영 및 위생상태, 소분시설 및 운영상태, 안전성 검사시설, 장비 상태, 친환경농산물 이력 및 원산지 확인 시스템 등 5개 항목은 현지실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업체 선정후 학교급식업체 심사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A업체의 경우 평점을 높게 받기 위해 서류상 종사인력을 11명으로 기재했으나 현지실사에서는 9명으로 나타났다.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현지 실사를 회피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다른 B업체는 해당되지 않은 공산 품 업종의 시설물을 친환경농산물 시설로 심사를 받는 등 편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해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을 M고등학교에 납품했던 업체까지 선정돼 문제

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이모씨(하당동)는 "시민들의 협세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비양심적인 업체들에게 어떻게 안전한 식탁을 맡길 수 있겠냐"며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모 위원은 "적격심사 기준이 현지실사로 이뤄져야 하는데 탁상에서 서류심사로 이루어져 특혜를 줄 수 있는 큰 모순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기준을 바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업체를 선정했다"며 "조만간 시에서 현지 실사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법에 따라 해지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신안 청정 감태 채취 현장

신안군 안좌면 주민들이 바닷가에서 감칠맛 나는 감태(甘苔)를 채취하고 있다. 감태는 오염되지 않은 바다에서만 자라는 해조류로 양질의 영양소와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어 겨울철 남도별미로 각광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목포시 오늘부터 '교복 물려입기'

25개 중·고 3,500점 수집

목포시가 저소득층 신입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랑의 교복 물려입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관내 25개 중·고등학교에서 참여를 희망해 지난해 2천 300여 점보다 훨씬 많은 3천 500점의 교복이 수집됐다.

시는 수거된 교복을 선별해 세탁하

고 수선까지 마친 후 23~25일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교육관(강당)에서 '사랑의 교복 물려입기 나눔행사'를 갖는다.

목포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아껴 쓰고 재활용하는 감소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학부모와 신입생들이 참여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수거된 교복을 선별해 세탁하

/서부취재본부=임양춘기자 lyc@

해남 우시장 전자경매 시스템 도입

내달 첫 장 열어

해남 우시장에 전자경매 시스템이 도입된다.

해남군은 해남읍 송용리 우시장에 1억원을 들여 전자경매 시스템을 구축, 다음달 첫 장부터 전자경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전남지역 가축시장 20개 가운데 화순, 장흥, 함평 등 3곳이 전자경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종이에 적어내는 수기 경매방식의 대표적 폐단인 담합을 방지해소 한 마리당 10만원 정도의 가격 상승으로 연간 5억 5천만원의 소득 증대가 예상되고 매매시간 단축으로 고급화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가축시장 20개 가운데 화순, 장흥, 함평 등 3곳이 전자경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열대식물 200여종·선인장 300여종

완도수목원 아열대 온실 '인기'

열대·아열대 기후대에 속하는 다양한 식물을 선보이고 있는 완도수목원 아열대온실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수목원 아열대 온실에는 대왕야자, 베자민 고무나무 등 200여 종의 열대·아열대식물과 금호, 펜타금 등 300여 종의 다양한 선인장 종류가 전시되고 있다.

또 대왕·워싱턴·코코스·카나리·공작야자 등 다양한 야자류와 고무나무, 아리우카리아, 관음죽 등의 관엽식물류, 망고, 과바, 바나나, 금귤, 하귤 등 다양한 열대·아열대 과일류를 함께 볼 수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김종수 완도수목원장은 "앞으로도 일년내내 불거리가 풍성한 공간으로 수목원을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미기자 dok2000@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김종수 완도수목원장은 "앞으로도 일년내내 불거리가 풍성한 공간으로 수목원을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김종수 완도수목원장은 "앞으로도 일년내내 불거리가 풍성한 공간으로 수목원을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류와 함께 알로에, 용설란 등의 다육식물들을 텅으로 접할 수 있어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선인장·다육식물원은 금호, 펜타금 등 다양한 선인장